
복클럽 C-real 금융교육 프로젝트

Group Bookit

3회차 활동 후기

목차 table of contents

- 1 진행 일정 및 참여 인원
 - 2 독후 활동 후기
 - 3 교구재 활동 후기
 - 4 배우고 느낀 점
-



1

2024.07.06. (토) 22:30

- 부모들의 온라인 화상회의
- 3-4회차 도서 준비 상태 확인, 미리 읽기
- 활용 가이드 영상을 부모들이 먼저 보고, 매뉴얼 다시 한번 숙지 및 지도 방향성 공유

2

2024.07.10. (수) 20:30

- 리더의 주도 하, 아이들의 온라인 화상회의
- 참여 인원 변화 (수민(7세), 지해(8세), 승우(7세), 하성(9세), 서원(7세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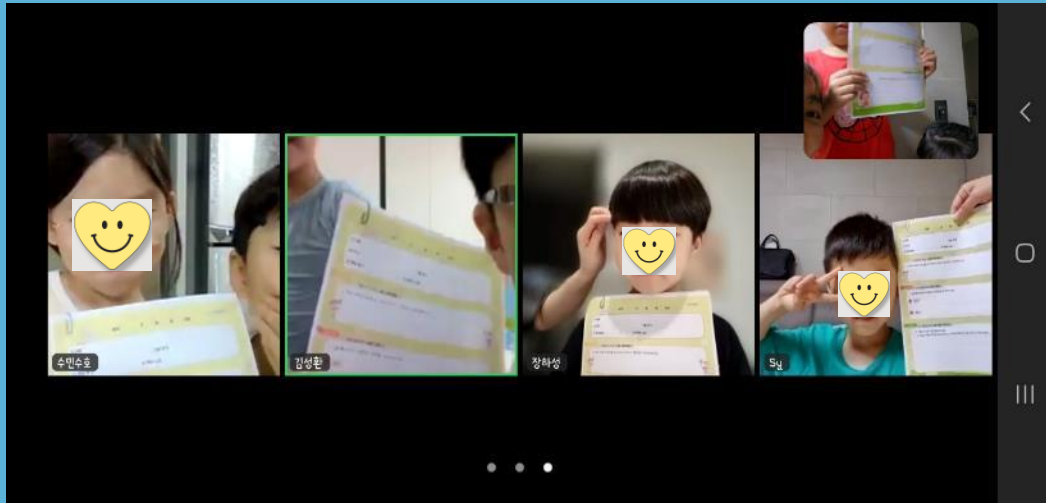
3

2024.07.10. (수) 22:30

- 부모들의 온라인 대화방
- 3회차 활동 Feedbac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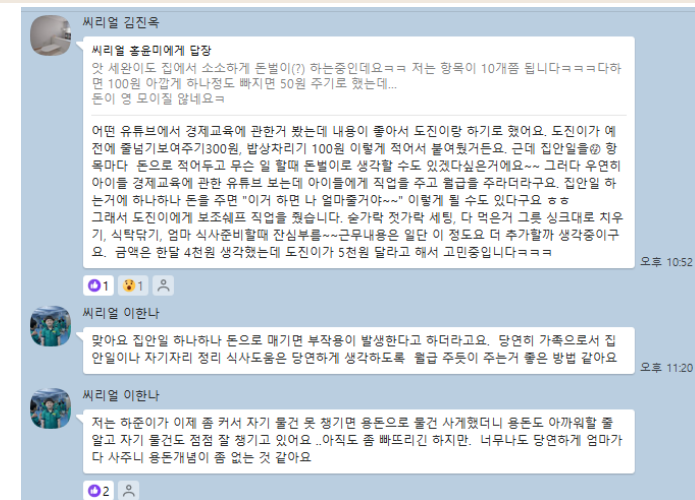
C-real 3회차 그룹 활동

- 3회차 주제 : '돈은 어떻게 벌까요?'
- 1,2회차와 마찬가지로, 부모들의 사전 준비 모임 및 북킷 교구재 발송 이후 온라인 모임 준비
- 3회차 부터 인원 변동 : 재이가 질병으로 7월 활동이 불가능하여 제외하고 진행하게 됨



아이들온라인모임

* 아이들 연령대가 어려 독후 활동지를 다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리더가 독후 활동지를 간단히 확인시키며 문답식으로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짐



부모들 Review

*3년이 거의 다 된 씨리얼 기존 멤버들 중 일부는 자녀 나이가 맞지 않아 그룹북킷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관심은 동일했기에, 활동 소감 피드백은 씨리얼 전체 모임에서 함께 공유하였음. 내용은 본 문서의 후반부에 공유하기로 함.

"7살 때 유치원에서 지폐와 동전을 주제로 활동했던 게 생각났어요. 나도 돈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!!"
- 지해 -

"저도 마야처럼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접 돈을 벌고 싶어졌어요!"
- 승우, 하성 -

"마지막에 발명, 밴드 활동 같은 것이 나온 게 신기했어요. 저도 그런 활동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저는 커서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해봤어요." - 서원 -

"마야는 주로 자기가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. 저는 예전에 (1회차) '당*마켓'에 중고물품 파는 것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."
- 수민 -

1

아이들 일부는 '화폐'를 주제로 활동한 적이 있어서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언급된 것에서부터 흥미를 느꼈다고 했고, 주인공 '마야'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나도 돈을 버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했다.

2

책의 마지막 부분에 돈을 벌 수 있는 활동들이 언급된 것을 보고,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들은 어른이 되어서 할 수 있음을 알고 '직업' 또는 '장래희망'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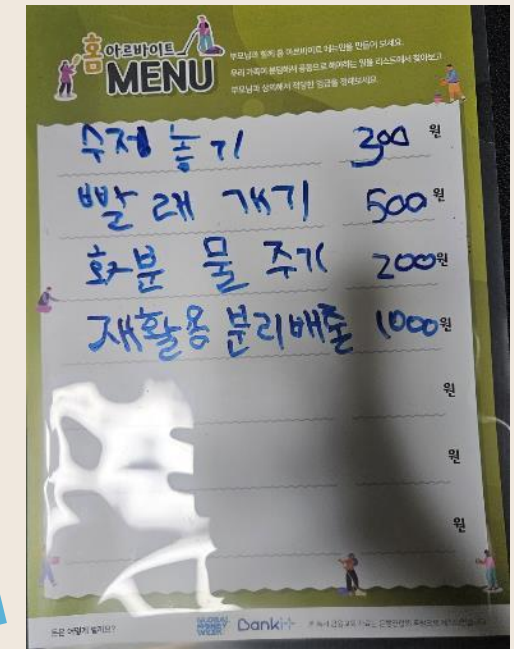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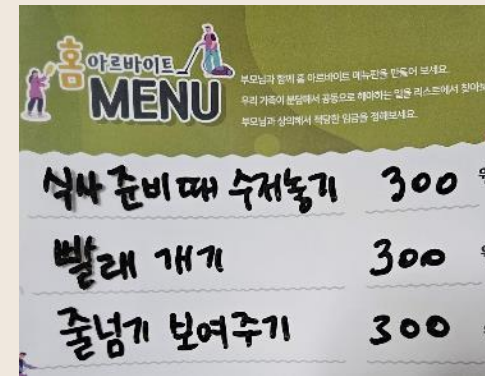
3

수민이의 경우에는 1회차 때 돈을 벌 수 있는 일에 대해 온라인 중고 판매(ex. 당*마켓)에 대해 인상깊었던 일을 떠올렸다. 키트의 활동들을 스스로 연계하는 수민이의 모습을 통해 다른 친구들이 생각을 확장하는 계기를 가졌다.
(→ '그룹 북킷'이어서 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의 힘!)

홈 아르바이트 관련 키트 활용 Feedback

- 키트의 메뉴 리스트에 따라 아이들은 수저 놓기, 빨래 개기 등 할 수 있는 일들을 골라 적었다.
- 활동 가이드 영상에서 학습/숙제 등과 같은 일은 책정하지 않도록 언급해주신 부분이 인상깊었기에 부모님들과 이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. (승우의 활동에서 '줄넘기 보여주기'가 있었는데 이는 씨리얼 모임의 다른 형(도진)의 사례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. 이후 이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른 부모님의 피드백이 있었고 이를 승우네가 잘 반영해주어 추후에 지도하게 되었다.)
- 그룹으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 같은 활동에 대해 금액이 다른 것을 발견한 아이들이 있었다. 이에 대해 가정마다 일의 양이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, 다른 항목들과 추가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.

활동 사진 : 홈 알바 메뉴와 임금 책정



* 친구들과의 활동 이후 개별적으로 메뉴와 임금을 조정한 아이들이 있었다고 한다. (→ 그룹 북킷이어서 할 수 있는 집단지성의 힘 (2))

흥미와 자신감

- “나도 어리지만 돈을 벌 수 있다! 😊”
→ 경제 활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상승됨.
-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증진됨.
(ex. 식당에서 서빙하는 직원을 유심히 관찰하는 아이가 있었다는 학부모님의 전언이 있었음.)

진로 교육 효과 (의외의 성과?!)

-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 ‘돈을 버는 경제 활동’이라는 관점을 갖게 되는 듯 보였음.
- 부모님이나 일상에서 경제 활동 하는 어른들의 직업, 사업 등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이 생겼다는 학부모님들의 전언이 있었음.
- 본인의 장래 희망과 직업에 대해 고찰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 놀랐음. (*부모들도 기대했던 부분이 아니었는지와 '라고 표현해 보았음')

수익 창출 아이디어 제시

- 키트에 제시된 홈 아르바이트 외에도, 안 쓰는 장난감이나 책 등을 **중고마켓에 판매해 보는 경험**을 방학 중에 해보기로 함
(ex. 지역당*마켓 서비스 활용, 사진 가격 책정 등 수행)

홈 아르바이트 활동에 대한 우려와 대안

- 키트를 활용해 홈 아르바이트 항목을 정하고 임금을 책정하는 과정을 거치며, 근로 계약에 대한 이해가 상승됨.
- 다만 ‘집안일’이라는 특성상, 항목별로 임금을 너무 자세히 나열한 경우, 사소한 심부름에도 ‘얼마 줄거야’ 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모님들의 우려가 있었음. → 월급 제도를 두어 아이들과 활동해 볼 생각으로 확장

감사합니다

